

## 38장 - 예수 우리 왕이여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  
서

## 373장 - 고요한 바다로

- (1)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 (2)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 (3)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 (4)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10월 15(월) 기도 담당 : 이기대 집사

2018년 10월 13일(토)

## 이른아침예배

인도 : 윤지옥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송 .....	38장
기도 .....	서창석 집사
성경봉독 .....	시편 76편 11~12절
찬양 .....	새벽찬양대
설교 .....	“서원하고 갚으라”
기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	373장
축도 .....	설교자

### 📖 오늘의 말씀 <시편 76:11~12 >

- 1)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 2)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여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 3)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셨도다 (셀라)
- 4)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 5)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 6)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 7)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 8)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 9)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 10)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 11)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 12) 그가 고관들의 기를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10월 13일(토)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새문안 성전에서 이른아침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이른아침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 청종(聽從)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에 주신 「나의 잘못이라(시77:4~15)」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더욱 가중(加重)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의심하며 신앙적 회의(懷疑)에 빠질 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나 자신의 잘못임을 철저히 자인(自認)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고(懷古)하며, 나를 실족시키는 사단을 대적해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고난과 절망에서 건지시고,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화요일에 주신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시75:1~10)」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면 악인과 의인을 주님이 바르게 심판하셔서  
악인의 뿔은 꺾으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에 주신 「밧단아람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야곱(창31:1~10)」이라는 말씀을  
통해,  
에서를 피해 도망하여 단신(單身)의 몸으로 하란에 들어왔던 야곱이  
하란에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로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귀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요일에 주신 「인간의 모든 행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창31:21~42)」이라는 말씀을  
통해, 지난 20년간 라반의 모략과 꾀박 속에서도 야곱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신 것을 확인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진실된 걸음에 보응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기로 다짐합니다.

금요일에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유력해진 야곱(창31:43~55)」이라는 말씀을 통해,  
도망하듯 귀향하는 야곱과 죽일 듯이 추격해 왔던 라반을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로  
양자 간에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 과거 청산과 대국적(大局的) 차원의 화해의 길을 열게 하셔서  
더욱 유력(有力)해진 야곱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요일 이 아침에 주신 「서원하고 갚으라(시76:1~12)」는 말씀을 통해,  
시련을 통한 연단(鍊鍛)이 피상(皮相)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이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케 하  
고,  
온유한 자 곧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서원하고 갚을 줄 아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도리임을 배웁니다.

**하나님!**

한 주를 감사로 매듭짓고, 주일성수를 준비하며, 새 한 주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